

“시즌 7개 팀 상대 1승씩 하는 것이 목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28일 SK슈가글라이더즈와 리그 첫 경기 FA 대어 강경민 잔류...전 국가대표 원선필·송해림 등 최상 컨디션

지난 시즌 ‘꼴찌의 반란’으로 화제를 모은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 대장정에 나선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감독 오세일)이 오는 28일 청주 국민생활관(SK호크스 아레나)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첫 경기를 한다. 4개월 동안 치러지는 리그를 시작하는 첫 경기다.

지난 시즌 창단 이후 최초로 4승을 올린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시즌 각오가 남다르다.

오세일 감독은 “시즌 동안 7개 모든 팀을 상대로 1승씩 하는 것이 이번 리그 목표”라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의 이번 시즌 라인업은 화려하다. 올해 FA 대어로 꼽힌 강경민(CB)은 친정팀 광주도시공사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지난 시즌 새로 영입한 전 국가대표 출신인 원선필(PV)과 송해림(CB/LB) 팀의 승리 사냥에 힘을 보

탔 예정이다. 지난 리그에서 어깨 부상을 당한 송해림은 부상을 털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올해 제17회 태백산기 대회에 출전해 SK슈가글라이더즈를 30-27로 승리, 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력 상승세다.

당시 맹활약했던 최지혜(RB), 김지현(LB)에 거는 기대도 크다. 김지현은 FA로 팀을 떠난 김금순(LW)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오세일 감독은 김지현에 대해 팀의 차세대 에이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6순위로 지명된 조대영과 출신 이슬기(LB)도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적응력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훈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실하게 시즌을 준비했다.

리그를 앞두고 5박 6일 천안, 청주, 익산으로 전

지훈련을 다녀왔다.

오세일 감독은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과 팀워크가 한 단계 올라왔다”고 평가했다. SK슈가글라이더즈와 첫 경기가 열리는 곳이 청주인 만큼 실전적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자신감이 향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핸드볼 협회와 광주도시공사의 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체육회도 이번 시즌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은 “팀 분위기가 고조된 만큼 과거와 다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며 “광주 핸드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평형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서 리그 출전을 위해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리그는 오는 27일 남자부 경기를 시작으로 내년 2월 말(포스트시즌 포함)까지 4개월 간 펼쳐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선수단이 지난 23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오세일 감독(맨 왼쪽),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맨 오른쪽)과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내 앞길에 태클을 걸지마 탬페베이 버커니어스의 와이드 리시버 마이크 에번스(13)가 24일(한국시간) NFL 풋볼 전반전에서 로스 앤젤레스 램즈 수비수 다리우스 윌리엄스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대 남자 테니스팀 창단

장준희·함형진 등 5명 구성

조선대학교 남자 테니스팀이 공식 창단했다.

조선대학교 남자 테니스팀은 24일 조선대학교 미술체육대학에서 조선대, 광주시테니스협회, 광주시체육회 등 대학, 협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이평형 광주체육회 사무처장, 강철성 광주시테니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조선대 남자 테니스팀은 김민철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를 감독으로 장준희, 함형진, 최현수, 우성현 등 총 5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조선대 테니스부는 올해 춘계와 추계 대학선수권에서 각각 단체전 준우승과 3위를 차지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려 왔다. 테니스팀은 애초 출초에 창단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돼 이번에 창단했다.

대학부 테니스팀 창단으로 광주지역 대학체육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여건인 광주테니스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계 육성 강화와 경기력 향상 등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광주 지역의 테니스팀은 봉선초 등 초등부 3개, 살레시오중(남), 살레시오고(남), 광주시와 연고를 맺은 한국도로공사(남·여) 팀이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시태권도협회

통합 2대 이영석 회장 재선

“더욱 겸손한 자세로 협회를 가족처럼 화목하게 이끌겠다”

광주시태권도협회 통합 2대 회장(광주협회 12대 회장)에 이영석(사진) 회장이 재선됐다.



광주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단일 후보로 등록한 이영석 회장에 대한 제25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이 당선인은 “더 겸손한 자세로 일하며 광주시태권도협회를 가족처럼 화목하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강진 출생으로, 조선대를 졸업했으며, 2007년부터 광주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일해 왔다. 현재 국기원 공인 9단이다. 이 당선인은 2011년 경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감독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

오창록 한라급 우승

오창록(26·영암군민속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0 민속씨름리그 4차 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에서 개인 통산 5번째 한라장사에 올랐다.

오창록은 지난 23일 강원도 평창군 송어종합공예체험장에서 열린 대회 한라급(105kg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이승욱(정읍시청)을 3-2로 물리쳤다. 앞서 7월 단오 대회에서 한라급 정상에 올랐던 그는 민속씨름리그에서는 처음으로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올해 2관왕을 달성했다.

결승에 오른 오창록은 오창록을 쓰러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진 마지막 판에서 경기 종료 9초 전 오창록이 기습 발다리로서 이승욱을 제압하고 우승을 확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이웃사촌

남에는 친구란 이웃인...
남에는 이웃인 친구란...
친인척? 이웃인가?!

7관 씨네극물: 내가 죽던 날, 봉쇄수도원 기르투시오, 킹덤 오브 헤븐, 디렉터스 컷, 벼든: 세상을 바꾸는 힘

8관 씨네극물: 삼진그룹 영어터덕반, 로그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La Bohème 라보엠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 30.(월) ~ 12. 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 12. 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